여수수협, 중매인 경매 거부 논란

중매인 48명, '수협 유통과 없애라' 경매거부

여수수협 "중매인 의견 모으겠다" 진화 진땀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중매인들이 25일 오전 수 시간 동안 경매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여수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매인 48명은 어상자 축소 및 수협 내 유통과를 없애라는 이유로 전원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전 3시 이후 일출 전 마무리되는 수산물 경매가 오전 11시 40분까지 이뤄지지 않다가 뒤늦게 여수수협 조합장의 해명 및 일처리 약속에 따라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여수수협에서 경매해야 할 수산물은 냉동 양태 등 중선배와 대형트롤 어선이 잡은 것으로 25kg들이 어상자 2000상자 분량으로 위판액 2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매인의 경매 거부는 그동안 수차례 있었으며, 대부분 수익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매인들은 여수수협이 물고기를 담는 상자 길이를 2㎝ 줄인 것과 유통과를 통해 타 수협 가격과 조율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에 영향을 끼친다며 적지 않은 불만을 가져왔다.

반면 여수수협은 경매하는 한 상자당 25kg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상자의 길이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중매인들이 이윤을 더 추구하기 위해 경매 거부 등 담합하는 것은 선주들과 수산회사를 비롯해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매 거부에 나선 중매인들은 "수협 유통과의 존재로 인해 위판고가 늘어도 수익이 적다"면서 "반드시 유통과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수협 김형주 조합장은 "유통과를 없애라는 요구는 수협 자체를 없애라는 말과 같다"면서 "다음주 중 중매인들의 의견을 잘 모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자 대표 주 모(65) 씨는 "대형 어선으로 잡아 온 물고기를 좋은 값을 받고 팔려고 해도 중매인들이 경매를 하지 않고 수산물을 수 시간씩 방치해 상온에서 변질된다면 누가 여수수협에서 위판하겠냐"면서 "이런 일이 자주 생겨 배들이 인근 목포수협 등으로 위판 장소를 변경하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베트남서 北기업 · 식당 철수 잇따라

베트남에서 북한 기업과 식당이 잇따라 철수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발 기사에서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남부 호치민에서 지난해 최소한 북한 기업 1곳과 식당 1곳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이지만 북한이 작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에 베트남 여성을 실행범으로 이용한 사건 이후, 북한 기업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호치민에서 철수한 북한 기업은 정보기술(IT) 관련사로, 베트남 당국이 북한 직원의 비자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북한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은 임대 계약 경신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당 식당의 책임자였던 북한 남성은 평양으로 돌아갔으며, 점원으로 근무하던 북한 여성 중 비자가 유효한 사람들은 하노이 식당으로 옮겼다고 한다.

베트남 당국은 김정남 살해 사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교관을 제외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북한 근로자의 비자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북한 관계자의 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 10중 7명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부 강제수사 찬성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강제로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리얼미터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 또는 특별검사가 강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39.7%·찬성하는 편 30.0%) 69.7%, '반대한다'(매우 반대 10.0%·반대하는 편 18.7%) 28.7%로 분석됐다. '잘모름'은 1.6%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광주·전라(72.9%), 경기·인천(71.9%), 대전·충청·세종(69.5%), 서울(66.4%), 부산·경남·울산(54.2%) 등의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75.2%), 30대(75.4%), 40대(76.2%), 50대(58.3%)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간 장병들 강원 일부지역에 영하 27도의 최강 한파가 몰아친 25일 화천군 화천천 일원에서 열린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은 군 장병들이 얼음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호남고속철 통과 농경지 '대형 싱크홀' 원인규명 추진

석회석 채굴 장성 건동광산 주변 일대 정밀조사 예정

호남고속철이 통과하는 장성군 황룡면 건동광산 인접 농경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형 싱크홀(땅꺼짐)'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용역 조사가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일대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 안전을 위해 탐사업체를 동원해 싱크홀로 의심되는 지하 구간 4곳에 대한 시추와 정밀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장성군과 황룡면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황룡면 와룡리 건동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10여년째 반복되고 있는 싱크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용역조사를 앞두고 지자체와 주민대책위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고려시멘트가 운영 중인 황룡면 건동광산 인접 농경지 지하에서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석회석 채굴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광산과 인접한 이 일대 농경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대형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호남고속철로와 100m 떨어진 이곳 농경지에서 폭 8~9m, 길이 4~5m, 깊이 2~3m 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빗발쳤다.

문제는 싱크홀 발생 원인을 놓고 주민대책위와 광산 운영사인 고려시멘트 간에 '광산 발파 충격에 의한 인재냐' vs '지하수에 의한 자연현상이냐'를 놓고 수년째 다툼이 일고 있다.

빠르면 올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싱크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용역조사'는 고려시멘트가 가동 된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 같은 다툼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추진 예정인 용역조사는 민원 발생 주체인 고려시멘트가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표성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공신력 있는 민간조사기관을 복수로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지점은 장성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반정모 기자

130여명 성추행 美 체조 팀닥터 175년형

미 미시간주 랜싱 법원이 24일(현지시간) 오랜 세월에 걸쳐 미국 여자 체조팀 선수들을 치료한다며 어린 선수들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에 대해 징역 40~17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사형선고로 나사르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에도 불구하고 나사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범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많은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랜싱 법원의 로즈마리 아퀼리나 판사(여)는 이날 나사르에게 "당신에게 선고를 내릴 수 있어 자랑스럽다. 당신은 다시는 감옥 밖으로 나다녀서는 안 된다. 나는 당신의 사형집행장에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사르는 우선 연방법원이 아동 포르노그래피 죄로 선고한 60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살아 있다면 랜싱 법원이 선고한 100년 이상의 형기를 추가로 채워야 한다. 게다가 오는 31일 이튼 카운티에서 또다른 성공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추가로 예정돼 있다.

나사르에게 175년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그가 범행을 저질러온 미시간 주립대학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나사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도 그에 대한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이튼 카운티에서 열리는 재판은 트위스타스라는 체조 클럽의 소녀 3명이 정기적으로 나사르에게 치료를 핑계로 성추행당한데 따른 것이다. 나사르는 이미 자신의 유죄를 시인했다. 이 체조 클럽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미 여자체조팀 감독이었던 존 케더트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 체조협회는 이번주 케더트를 자격정지시키고 그의 은퇴를 발표했다. 케더트는 나사르의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사르의 피해자 가운데 하나인 카일 스티븐스는 미시간 주립대학이 자신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퀼리나 판사 역시 나사르의 범행에 대한 많은 제보들이 있었는데 대학이 이러한 제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세계 첫 원숭이 복제에 성공

중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핵치환(SCNT)기법을 통한 원숭이 복제에 성공한 데 대해 중국 언론들이 서유기에 나온 '손오공 신화의 현실판'이라면서 흥분하고 있다.

25일 중국 중신사 등은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 순창(孫強) 주임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영장류를 상대로 한 복제에 성공했는데 이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자신의 털 한 줌을 뽑아 입에 넣고 씹다가 내뿜으면 그 순간에 털들이 200~300마리의 작은 원숭이가 된다는 대목을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이런 복제기술을 통해 의학계는 뇌신경질환이나 암 같은 사람의 질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다만 이번 성과가 인간 복제하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게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